

사도신경 9: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성령은 물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터툴리안)

■ 성령을 믿는다? 받는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 성령에 대한 언급이 짧은 이유

- 사도신경이 쓰여 진 배경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 사도신경의 구조

‘성령의 역할 /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사함, 몸의 부활, 영생

■ 성령은 하나님이다.

- 로마서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사도행전 5:3~4절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

님께로다

■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

- 창조의 힘 (창 2:7, 욥 33:4, 겔37:5)

- 카리스마적 지도력 (창41:38. 민27:18, 삿 3:10)

- 예언, 말씀을 주심 (사61:1~2)

■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

-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 하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 진리를 깨닫게 하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절)

- 구원에 확신 속에 살게 하심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 13~14)

- 증인으로 살게 하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 믿다는 것은 사랑하고, 닮아가는 가게 한다.

-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형상과 모양의 차이?

- 형상, image,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모양, likeness, 유사성,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즉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인간이 그 형상대로 얼마만큼 닮아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닮음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 나눔

- 교회가 성령 체험(방언, 은사, 신유 등등)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경험한 순간을 나눠봅니다.

-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나눠봅시다.

■ 기도

1.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체험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2. 언덕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 구성원의 상황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내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19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이기주의와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이시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